

강기정 “민·군공항 통합이전, 정부·민주당이 나서야”

범정부협의체·민주 특위 등 요청 ‘강경발언’ 전남·무안에 공식 사과 김 지사 “진정성 필요...적극 협력” “부단체장 등 3자 회동 방식 고민”

강기정 광주시장이답보상태인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또 최근 전남도와 무안군을 대상으로 한 ‘함흥차사’, ‘양심불량’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군공항특별법을 제정해 기부대양여 방식을 넘어서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었고, 전남도와 합심해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에 합의했으며, 약 3만명의 무안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성

과를 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이전 후보지 결정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알 속의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알 바깥’의 당사자인 정부나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민주당이 줄탁동시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 민주당의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중앙정부는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재개해 무안국제공항 건설,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 KTX 무안공항 경유 등 역대 정부들의 성과를 잇는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통해 서남권 발전의 비전을 완성해 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주당은 세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속한 정당이므로 ‘특위’를 구성해 당사자가 풀기 힘든 매듭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최근 전남도와 무안군에 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강 시장은 이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안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공식 사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 시장은 “맞다. 국정감사때도 사과 했지만, 그것은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사과여서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민·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말들을 반추하다보면 감정이 쌓일 수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주요현안인 만큼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안군민들의 수용인 만큼, 군민을 대변하는 무안군수와 어떻게든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부남(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김 지사의 ‘중재자’ 발언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항 이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광주시가 공항 이전의 1차적인 당사자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 전남도가 이전 문제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 시장의 사과와 관련해선 “무안군민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전남도 또한 광주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무안군수의 3자 회동이 어렵다면 광주 부시장을 필두로 전남도와 무안군에서도 다른 사람을 지명해 3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전국 최고’

광주지방국세청 국감

지난 2022년 기준 비중 46% 달해 국감서 “세수확보 수단 안돼” 지적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의 세수 실적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에 머물면서 세수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가 높은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최근 몇 년새 전기,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업 등 지역 산업 부진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을 뿐 비정기 조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입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이 46.1%로 전국 평균 36.7%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정기조사 비

중이 전국보다 5.9%~14.7%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비정기조사 비중이 각각 59.8%, 50.9%로 정기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9년 이후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광주지방청의 비정기조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최근 5년간 전국 평균보다 1.7%~6.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상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 기반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하위권인데도 비정기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감소는 지역주력 산업의 매출부진이라는 분석도 나온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4일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13조8000억원으로 2022년(15조1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8.6%) 줄었다. 2021년 세수 실적(1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2조3000억원(14.3%)이 줄었다.

석유화학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관할

하는 여수세무서의 세수 실적은 2021년 5조75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700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호남권 주력 산업의 최근 몇년새 수출, 내외·수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큰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수 기자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全南日報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74
2. 분묘기수 : 무연(1기~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주택건축)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연차기간 : 10년
7. 신고처 : 이화영 (010-8825-1441)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도도
선박특수촬영 / 생신식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나주시 공고 제2024 - 139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합니다.

2024. 10. 25.
나 주 시 장

1.해제지역
가. 위 치 : 나주시 산포면 신도·송림·화지·산제리, 다도면 풍산리 일원
나. 면 적 : 800.425㎡
2.해제사유 : ‘연구소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3.열람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4.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교육지원과, 산포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5.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25.(금) ~ 2024. 11. 8.(금)
6.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전자우편(kjh0326@korea.kr) 제출
7.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7), 교육지원과(061-339-46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 - 2255, HP. 010 - 9441 - 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무송하여 드립니다.